

진도군 지방채 94억 상환 '채무 제로' 달성

재정건전화 로드맵 예정보다 9년 앞당겨 전액 상환

진도군이 최근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진도군은 지난 3월 지방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민선 6기 152억원이었던 순채무를 전액 상환했다고 1일 밝혔다. 진도군은 그 동안 군비 부담금이 높은 채무를 단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해 빛 청산 작업에 속도를 냈다. 군은 로드맵에 따라 군내 농공단지 조성

사업 58억원과 교부세 감액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2018년 현재 진도군 순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군은 당초 상환기간인 2027년보다 9년이나 앞당기고 이자액 등을 절감해 재정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 2018년 기준 7.5%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거둔 성과 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진도군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해 연말까지 12년 연속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보다 58억원이 늘어난 41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1년 2387억원이던 진도군의 예산은 2018년 본예산 기준 창근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한 3133억원을 편성했다. 세입부문에서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

부세가 증가했고 세출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와 농업해양수산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도군 관계자는 "채무 제로 달성으로 그동안 채무 상환에 쓰였던 재원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본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군민소득 1조원 달성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 청해진 유적지의 야경. 완도읍 장도 청해진 유적지가 저녁이면 망루와 목교를 비추는 조명이 바다에 반사돼 밤의 운치를 더한다. 특히 바닷물이 가득 차는 만조 저녁때면 마치 거울처럼 바다위에 반사된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완도군 제공>



진도개테마파크 체험친화형 공간 새단장

동물모형 사파리·놀이시설·동물농장 등 조성

진도군이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도개테마파크를 체험친화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다. <사진> 1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 동물모형 사파리, 미끄럼 놀이시설과 조랑말, 염소, 토끼 등과 만날 수 있는 미니 동물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가을 개장 예정인 진도개 애견 캠퍼는 애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진도개테마파크내 시설을 연계 이용이 가능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도개테마파크는 우리나라 대표 명견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공원과 경주, 강아지 체험 등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사업소 관계자는 "동물농장 등은 오는 5월과 6월 개최되는 진도개페스티벌 이전에 개장할 계획이다"며 "시설 확충으로 진도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500만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달마산 달마고도 트레킹족 북적

걷기축제 1000여명 몰려

땅끝마을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달마고도(사진)가 전국에서 찾아온 걷기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봄 산행철이 시작되면서 달마고도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걷기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전국 최고의 힐링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제1회 달마고도 걷기 축제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 신록 가득한 땅끝의 봄기운을 만끽했다.

'2018 봄 우리나라 걷기 여행축제'로 선정된 이날 행사는 걷기행사와 함께 명상 음악회, 숲속 음악회, 각종 체험행사 등이 펼쳐졌다. 달마고도는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본래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계를 쓰지 않고 돌 하나하나를 지게로 날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공룡의 등뼈같은 바위암릉이 끝도없이 이어지고, 앞으로는 다도해의 전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내달부터 최대 年 100만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남군은 5월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중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남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이다. 대상주택은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의 2%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1회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4년간 지원기준 해당 여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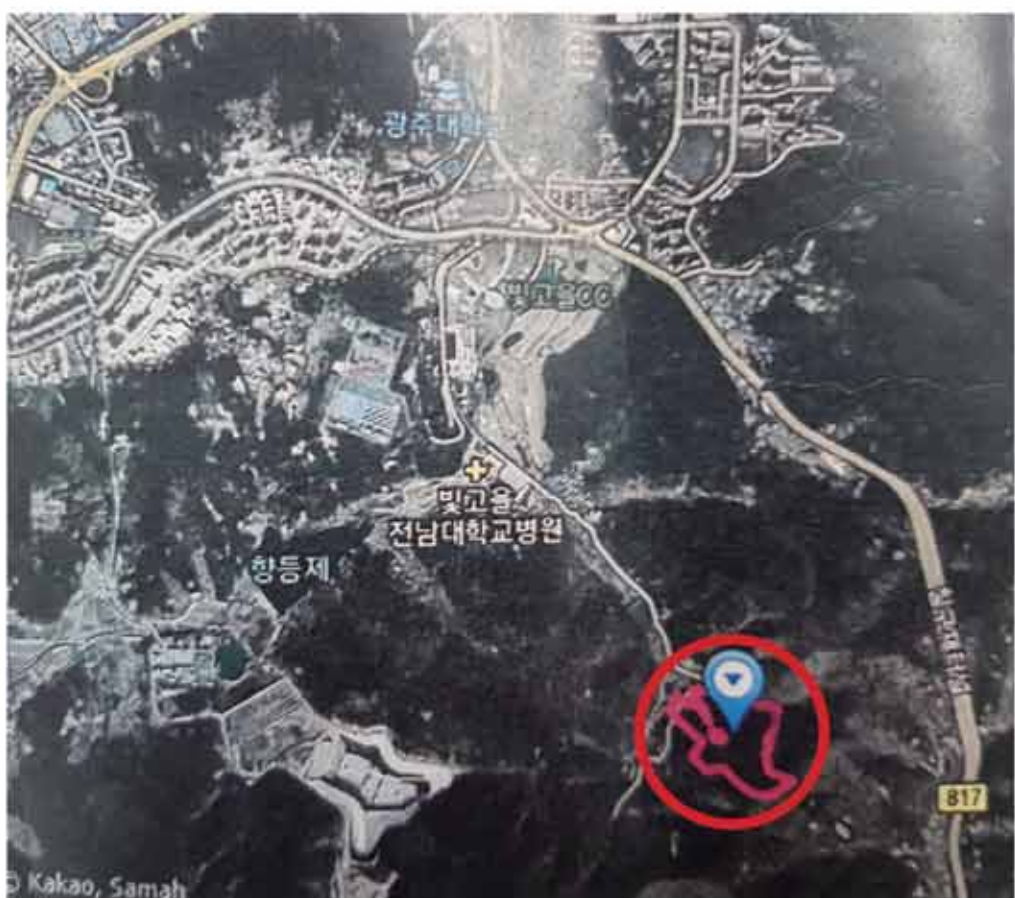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권 대출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결혼 감소와 만혼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전복으로 환절기 나른함 날리세요

郡, 어업인 돕기 프로젝트...5월까지 특별 할인판매

완도군은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대표 보양음식인 완도전복의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바다의 명품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맛과 영양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고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가 있다. 전복 죽은 예전부터 환자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복 내장을 빼고 죽을 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복 내장에는 원기회복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내장을 갈아서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전복죽 이외에도 전복해조류비빔밥, 전복미역국, 전복스테이크, 전복 갈비찜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며, 간편하게는 전복라면으로 보양식을 즐길 수도 있다. 완도산 전복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의 청정한 바다에서 각종 해조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맛이 좋고 영양성분도 우수하다. 완도군은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복 할인 판매 행사를 추진해 어업인들도 돕고 국민 건강도 챙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3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8-1230